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08호
10월 15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2023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OT

목사고시 2023년 2월 6일 설교 및 면접 등 시행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29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23년도 목사고시 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강창준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복근 목사의 기도, 이어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마 28:14,15 말씀을 본문으로 '탈판트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종의 재능에 따라 소명을 주신다'고 전하고, "그리므로 매사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고시생들을 축복했다.

이석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들을 선출하고 연



락방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분제집 발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23년 2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치러지며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 교회성장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사기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사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며 평가 하기에 대해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실시된다.

교단 제68차 총회 제40회 임원회

제71차 정총 준비 만전, 태풍피해교회 지원

국가안보와 차별금지법 제정저지 위해 기도



신재경 목사
예배장 총회장
새집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경 목사) 제68차 총회 제40회 임원회가 지난 9월 29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에서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강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진수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롬 6: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세상의 험한 것에 비유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영생을 위해 살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감화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이대규 초경역 태풍 한반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저



지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감영병 종식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갈릴리교회와 담임 정영진 목사님을 위해, 장기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부총회장 정영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으로 이어진 임원회는 재무 한순남 목사의 개회기도 후 총회장 신재경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참정, 의장 신재경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사장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 10월 17일 개회할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71차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개최되어 제71차 총회 임원 일부추진 등 중요 일정을 수월하게 끝내고 2023년 목사고시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모두 적법하게 통과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모임, 예산위원회 모임, 정책위원회 모임 등이 시행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진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기금 청원, 교회명칭 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이어 감영병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어 있지만 다시 교회별 방역을 강화하여 교회별 감염소식이 극소화된 수 있도록 방역에 관한하여서는 더욱 세밀하게 살피 감영병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또한 오는 10월 17일에 개최되는 7차 장기종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영남동지방회 '한남노' 폐회교회 교회를 지원하기로 하고 후원회 준 은혜와진리교회와 순복음갈릴리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원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야'



조용욱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글과 말 중에 성경 말씀보다 더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 없으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중독에 더 심하고 중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그 속에 복음이 요약되어 있으며 그 말씀의 신비함과 보배로운 뜻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어떤 목적하는 곳으로 편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길은 방법을 나타내며, 행동을 변화하고 지침과 목표의 의미를 나타내며,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를 이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수단과 방법이십니다.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수단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지침과 목표이십니다.

인생을 참으로 잘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며,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십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자 같아도 성공한 자입니다. 이분들은 자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령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령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죽음의 연장을 말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 사는 생령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생령이 끝나는 것에 불과하며 영생에는 허물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생령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의 육체까지 장차 부활하게 하여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니다.

생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한 사람들은 날마다 풍성한 생령의 작동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령이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내딛어오르므로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령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면 영락, 근심, 불안, 죄책감이 사라지고 기쁨, 평안, 소망,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령은 우리의 생명을 소생하게 합니다. 참재미, 기쁨, 분유기를 받게 변화시킵니다. 소망하는 사람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일찍이 전 중의 인물이 되고, 저명인사들이 이름을 남기기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극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생령은 길 잃고 방황하는 삶이며, 허무와 무의미의 삶이며,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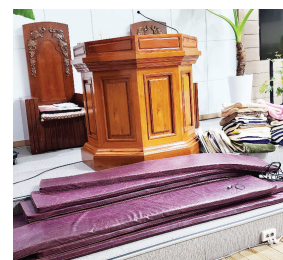
태풍 '힌남노' 피해 교회에 성금

영남동지방회 다섯 교회에 전달

본 교단 산하 영남동지방회 다섯 교회가 지난 9월 6일 태풍의 위력을 품고 영남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비파와 비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긴급 모금에 나섰다.

총회는 교회의 피해 정도에 따라 2백만 원, 5백만 원 등을 태풍 피해 다섯 교회에 정성껏 전달했다. 이번 태풍 피해 돌기 성금 모금에 총회를 비롯 은혜와진리교회, 순복음갈릴리교회 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사랑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총회장 신재경 목사는 피해를 입은 교회 담임목사와 임원인 전화통화를 하며 위로하고 빠른 복구와 신심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의료달란트를 복음사역에 사용

누가선교회, 누가치과 롯데호텔 본점 치과 확장예배 드려

사단법인 누가선교회(대표이사 김성만 목사) 누가치과 롯데호텔 본점치과 확장예배가 지난 9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6층에서 드려졌다.

1부 강사예배에서는 김성만 목사의 인도로 이종득 장로(국제선교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박훈희 권사(누가선교회 법인이사)의 성경봉독, 누가치과대학원 원우전양단이 특송했다.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정일용 목사(전 총신대학교 총장)는 "대부분 경제 위기에 처한 때 누가선교회의 사명이 확장되고 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며 "김성만 목사님은 한국교회 복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전했다.

했다.

정 목사는 "김 목사님은 의사로서, 목사이로, 사업 경영자로서 달란트를 받았다. 복음 사역에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간파하고 저비용 선교의 모범을 보였다"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해 성령에 충만하고 부자됨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과 보고 지도 힘을 모아 돌고자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재화와 주권을 겸하여 성실 수급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며 "모든 물질은 복음의 주임인 하나님을 분량하게 목재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달란트를 복음의 사역에 사용되고 형상 선한 것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삼재선 목사(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는 "어려운 때 참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면 다 잘될 수밖에 없다"며 "누가선교회와 누가치과의 사업이 점점 확대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박산배 목사(전 강서대학교 총장)는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는 학개서의 말씀이 생각났다"며 "김성만 목사님이 그동안 원로목사님들을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목사님들을 사랑해서 수급하는 주의 종들에게 격려를 주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수밖에 없었다"고 증거했다. 이후 김성만 목사(국제선교회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성서공회, 볼리비아 성경기증 예식

창조교회의 후원으로 성경 6,150부 기증

대한성서공회(회장 권의형)는 지난 9월 30일 창조교회(총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볼리비아에 스웨덴어 성경 6,150부를 보내는 기증예식을 가졌다.

이런 기증예식에서 창조교회 총기영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세력을 얻은 때에 그 사회의 잘못된 부분, 아저라했던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볼리비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지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아름답게 새겨지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비감을 전했다.

볼리비아성서공회 파니 코요이 총무는 영성 인사를 통해 말씀을 읽고 싶어 성경을 구할 수 없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회당과 구역이 되는 성경을 후원해 준 창조교회(총기영 목사)



에 감사했다.

본 공회 권의형 회장은 "볼리비아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총기영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내는 스웨덴어 성경이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감사사를 전했다.

이날 성경을 후원하는 볼리비아는 남미에서도 빈곤에 속해 빈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선 아래에 속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장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마약과 폭력 집단에 노출되어 있다. 또 볼리비아에는 어느 정도나 국가들과 같이 가톨릭이 널리 자리 잡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동의 음악회

한기총 '한국교회와 함께 가곡의 향연' 가을이 가슴으로 스며들여



고조된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동의 음악회가 열렸다. (재)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하늘오케라 관악기대합주는 지난 10월 1일 서울 연희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교회에서 '2022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가곡의 향연'을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장기증장기회 후원본 음악회는 일반 가곡 뿐 아니라

관악기, 성가 등 기독교 음악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대장단 전체를 은혜와 축복의 빛으로 물들였다.

이날 소프라노(이옥순, 교수), 조지진 테너(문선녀, 음악원 외래교수), 김경규 테너(서울예술대학, 교수), 김준호 소프라노(주대 예술대학부, 교수), 고성진 바리톤(한서대, 교수), 김재경 소프라노(연원 오케스트라 대

조) 등 한국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한 이번 공연에서는 '은혜 아가', '열한 십자가 불꽃',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등 우리 가곡에 대한 찬양들이 청중의 목소리로 표현됐다.

이 외에도 '달밤', '서대문', '산노랑', '형산에 살리라', '이별의 노래', '진짜' 등 한국 최고의 대표곡들이 연이어서 선보였다.

인사를 전한 한기총 김현철 임시대표회장은 "노을같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귀소머슴이 가슴에 내려 앉는 듯한 느낌이다. 바쁘고 지친 일상을 지우하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크리스마스 교회와 국민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새로운 위로하며 다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한기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북부 총동문회 부흥사회 기도대성회

기도의 불길 통한 민족복음화에 전력키로

(사)민북부총동문회(이하 민북부) 총동문회 전국부흥사회 기도대성회가 지난 9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조년초 소제오리영신사주일예배에서 열려 기도의 불길을 통한 민족복음화와 운동에 전력하기로 했다.

이날예배는 총동문회장 양준원 목사의 사

회로 운영부총재 신석 목사의 대표기도, 학술부장 강예성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재 윤오규 목사의 장23: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부활의 묵'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양준원 목사·부총재 이상복 목사는 축사를 통해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축사를 했다. 총재 이태희 목사·연구부장 김병호 목사는 권면을 통해 총동문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

대성회는 계속해 총무 김경도 목사의 헌금기도, 회계 손보라 목사의 헌금송송, 사무총장 김익배 목사의 광고후 특별기도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동문회장 양준원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석전임부총장 하성희 목사는 '세계선교를 위해', 행사본부장 김진관 목사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46기 총무 김승우 목사는 '총동문회를 위해' 기도문을 인도했다. 민북부 총동문회 전국부흥사회 기도대성회는 총재 이태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사마리안퍼스코리아에 2만 여개 장난감 기부

토이트론, OCC 선물상자에 담겨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전달

토이트론이 사마리안퍼스코리아에 3억 530만7300원 상당의 장난감 2만125여개를 기부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림드 사역에 동참했다.

토이트론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좋은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기업으로, 아이들의 재미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닌 건강한 마음과 신체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장난감을 기부하는 사역이다. 토이트론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좋은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기업으로, 아이들의 재미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닌 건강한 마음과 신체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장난감을 기부하는 사역이다.

퍼스코리아 사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마리안 퍼스 스가 및 대표자 감사사, 기부금 전달식 및 헌화의 순서로 이어졌다.

토이트론 배종국 대표는 사마리안퍼스의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림드 사역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장난감을 기부하는 사역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토이트론을 설립하면서부터 일정 금액의 수익이 생기면 장난감을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기꺼워하는 일을 하겠다"며 마음을 전했다. 특별한 요즘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이번 아이들이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기관에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서 "그러면 중 사마리안 퍼스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 토이트론 해외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기증식

장기기증에 서울시의회 적극 나선다

112명 중 34% 의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지난 9월 28일, 9월 장기기증의 달을 맞아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원기) 본관 1층에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이 지난 9월 28일 개최됐다.

"인간의 삶은 사후에 대한 희망(나)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시 전진하는 서울을 위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 개원을 기념하며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한 방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을 진행했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는 김원기 의장과 남정진 부의장, 우정환 부의장, 박원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념에 16명의 의원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새롭게 참여하고, 이미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장기기증 인식 개선에 앞장서온 22명의 의원들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이로써 제11대 서울특별시



의원 112명 중 34%에 달하는 3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제11대 장기기증 희망등록률 32%의 10배에 달하는 등록률을 보였다.

김원기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소중한 나눔이다"라며 "올해 국민

투표를 통해 만 16세 이상 국민 중 명시적으로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윌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코틀랜드,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교협, 신임회장에 정병기 목사

은퇴목사 노후 보장, 목회자복지지원금발전위원회 구성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 천안명문교회에서 제8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정병기 목사를 선출했다.

그교협은 이날 현장을 떠나는 은퇴목사 노후보장을 위한 목회자복지지원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나님께 선택 받은 자가 되자(창 18:19)라는 주제로 개회된 총회에는 목회자복지지원금발전위원회(위원장 노후보장 기금)를 총회총회관에서 오는 10월 중 경정비를 종료한 후 10월 600만원과 750만원 가량에 달하는 은퇴목사 기금으로 기본기금을 조성하고, 목회자들도부터 일정액의 은퇴금을 책정하는 방안, 국민연금 또는 보훈처와 연계하는 방안을 등 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기독교대학의 관선이사간예련회, 총장대행의 보고를 듣고 임원들이 이사를 만나 이사 파송과 재정지원, 학교정신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회 임원의 공로와, 교회에 기여한 향가나 교회와 새로 선출된 지방교회들에게 공로와 빛축하회를 전달했다.

국내 NGO 최초로 웹드라마 '서이추' 공개

굿네이버스, DKZ 멤버 세현 X 엘리스 멤버 유경, 첫 로맨스 도전

글로벌 이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국내 NGO 최초로 웹드라마 시리즈 '서이추'를 '이웃'을 지난 9월(월) 공개했다. '서이추'는 캠퍼스 '인생' 온경(세현)과 '이웃' 리우경 분이 굿네이버스 대학생 공모전에 참가하여 나눔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웹드라마 시리즈로 드라마다. 인기 아이돌 그룹 DKZ의 멤버 세현과 엘리스의 멤버 유경이 '서이추'에 출연해 첫 로맨스 연기에 도전한다. 세현은 뛰어난 배드먼 실력과 훌륭한 외모로 젊은이들부터 '온경' 역을 맡았으며, 유경은 공부도 식기도 뛰어나 혼자 잘하는 슈퍼 내한인'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세현과 유경은 극 중서서뿐만 아니라 굿



네이버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해바퀴네이버스 챌린지에 직접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웹드라마 '서이추'에는 DKZ 멤버(영웅, 재찬, 종현, 민규, 기성)가 우정 출연으로 함께 등장해 또 다른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4편으로 제작된 '서이추'는 10월 4일 첫 에피소드 공개를 시작으로 10월 18일, 11월 1일 굿네이버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례로 공개된다.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11월 1일에는 굿네이버스 회원들과 함께 오프라인 사회봉사를 개최한다. 이날 사회봉사에 주연 배우들이 참석하여 출연소감을 전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명의 말씀



송필 목사
· KAICM 교분

사회개혁까지 유망한 화기인 존 라스킨이 어떤 파에 참석했습니다. 라스킨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선물 받은 귀중한 스카프에 인구가 묻고 말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보기도 흉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인, 잠깐만 스카프를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장회의 구적으로 가서 펜과 잉크를

부탁해 스카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카프의 일쪽은 나무와 새의 일부만이 있었고, 라스킨의 그림으로 인해 스카프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잉크의 얼룩이 아름다운 무늬가 되듯이 우리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1장 4절부터 14절에는 천사들과 그노스도스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우리는 잘못된 순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천사는 순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대상이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매우 존경하고 받드는 자세를 보였고, 중세시대에는 천사를 살리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천사와 교통한다고 속히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 영적 존재이고 순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마 19:17)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많이 퍼진 어떤 이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피조물이며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고 기를 부음을 믿음으로 메시아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숭배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창조자인 예수님은 모든 권

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마 28:18)

셋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경배를 받고 순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림 예수,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허위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삼기교 경배하십시오(막 13:32, 엡 4:6)

오늘 본문을 통해 잘못된 순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읽거나 잘못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사로잡히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로 알고 오묘로 알고 고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진리의 길에서 참된 하나님을 삼기교 삼시요, 주님과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동정

이신화 대사 “천인권 너무 양보”



5년의 공석 이후 일명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가 향후 북한 인권 문제 탈장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다. 버릇없어지고(spoilt), 대답해줘야(embolden)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유실된 정부가 회박해서 북한과 무관하게 해야 하는 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대사의 평가다.”

국제종도교회, 이신 목사 취임예배



국제종도교회(대전 대덕구 비래로 소재)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이신 목사(미국 유나이티드 신학교 총장)를 위임목사로 하는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신 위임목사는 국내의 2000교회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 부흥사로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최소성 한동대 총장 글로벌 행보



현지 시간 지난 9월 22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최소성 한동대 총장이 뉴욕 북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LA, 달라스 등지를 순회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의 비전(飛躍)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최 총장은 이번방미 일정 동안 신도칼리지 대학 등과 협력을 논의했다.

부산외대 총장에 정순흥 박사 선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학교법인 성서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정순흥 박사를 제1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정 총장은 2014년 2월 1일부터 1월까지 한동대 제5·6대 총장을 맡는 등 다양한 교육 경력을 지닌 대학 운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3년 9월 30일까지 4년이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공영방송이 국제적 망신과 국가 원수를 음해하는가

최근 대통령에 관한 비속어 논란이 있었다. 유실역 대통령이 지난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퇴치를 위한 것) 제7차 재정 공약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오는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했었다고 하여 ‘외교 참사’라느니, ‘외교 부패’라느니 우려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정치권과 방송을 통하여 나왔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이리몽롱하게 만들었다. 아니 대통령이 국제회의와 국가 간 정사를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방송에서 보도한) 비속어를 사용했다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리지면서, 이를 최초로 공개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국민들을 또다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MBC의 잘못이 명확한 이를 최초로 보도한 MBC에 속한 제3노동조합에서 20일 외

교 참사 부를뿐만 보도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성명서를 발송하였다.

그 성명서에 의하면 유실역 대통령 발언을 노골적 재해석하면 비속어 ‘외교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라고 단정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이라는 것지도 않은 단언까지 자막으로 넣어 방송했다. 한미 정상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보도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MBC가 일방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진문거짓도 묻고 싶고 있다. MBC가 아무리 ‘노성 방송’ ‘편파 방송’ ‘외교 참사’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도, 취재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해외 나가 국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때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편파 이트를 끌고, 20cm 이내에서 정확히 녹음한 것을 사용

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지나가는 대통령이 1m 이상 떨어졌고 편파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권자(유실역)라고 시시러운 상태에서 자기들이 작위적으로 카메라에 찍은 것에 의도적으로 많은 단언들을 자막으로 넣어 방송했다는 것은 방송 언론이 아니라, ‘파괴자’ 수준도 안 된다.

MBC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다. 아무리 방송이 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과 하고 공지에 몰아붙여도 해도 본방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까지 넣어 선동하고, 학살교과를 통하여 공론화하려 한 것은 방송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악보(惡報)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MBC 재노조는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같은 언론인, 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것이 정말 한국 언론의 수준이란 말인가?

아니 편집은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종래에는 MBC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고 말 것이다. MBC는 국민의 자신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 언론이다. 앞으로 취재 윤리 부재와 언론사회의 교섭(교섭)이란 MBC 보도가 사용될 것이다.

MBC의 이런 보도 태도는 우리나라 국제(國體)을 떨어뜨리고 하고 외교 문제에 손상을 주고도 하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취재 윤리를 지키면서 비평가 해야 하는 이유이다. MBC는 역시 MBC답다.는 부정(否定)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목양의 산책

조혜란 목사 / 김보교회, 한국교회영성회 대표회장 역임

마음을 나누는 법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얼마가 사역으로 뛰어 들어오면 혼자 고는 나는 심로를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난감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노인이 새벽기도에 오셨다. 기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경로도 김교회를 전파하는데 손자가 우리 동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손자를 받게하니 같이 오셨고, 교회 옆 언덕에 사셨다는 것이었다.

주일날은 차를 타고 다니던 김교회를 가지지만 새벽기도는 가까운 우리 교회로 나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용사를 준비해 두셨는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이해시키고는 안락(安樂)

해주었고, 손자가 학교에 간 시간은 두 근처 공장에 나가 일도 하지 않고 부러워하고 근면하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지난 후 손자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동무를 했다. 학생이 한 명 생겨 너무 좋았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와 아내를 찾아하고 김교회를 위로가 되고 할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역도 교회 발전(발전)으로 이사를 했다.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생수가 2병씩 놓여있는 것이었다. 방에 어떻게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지에 의의 성이 그대로 담겨 너무나 시원하고 달랐다. 그런데 물레 두고 가서 누가 언제 가져다 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던 나는 우연히 못 앞에 물레를 조심스레 돌려둔다 권사와 딱 마주쳤다.

권사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라지했다. 그 연세의 이르지 산 위의 약자에 올라가서 자신의 것이 우리 집 약수를 정해서 먹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성 사명과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목회자가 가난해 보이면 돕고 자기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를 삼기고 대립(對立)이 아니구려하는 자세다.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대에 명할 때 괴로운 상사 안 들어온다는 소문은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침침은 감자에서 나오고 구제는 연인 때문에 행한다. 꼭 좋은 것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추악에 대한 믿을 줄을 끊어서 자기 집에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에 받아 놓아주고 조심스레 가져다주시는 사

랑이었다.

나는 맛있게 그것을 먹으며 따뜻한 손길에 담긴 사랑에 감동하고 저절로 행복(幸福)도가 높아졌다. 목사로서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는 음식에 담긴 정성을 구별하여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정성을 함께 먹는다. 불평한 마음으로 혹은 악의에 찬 마음으로 먹으면 맛이 없다. 맛이 없으면 마음도 그렇게 드러나기도 한다.

개척교회로 하면서 아이(아이)였던 나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개척교회 두 송이를 들고 서울의 처지로 갔다. 처남과 처형들이 용돈도 드리고 음식 대접도 하러 올 것이니 그제에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정인(正人)과 정모(正模)를 찾아다니고, 정모(正模)를 처러주시는 아들을 함께 먹고 기도하고 드리고 돌아왔다. 그때 개척교회 전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다. 최선이었다.

믿음 안에서 정모(正模)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기뻐해 주었다. 가진 것이 없어 나눌 수 없고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부(富)를 추구(追求)하는 삶이었다. 내 것이 차지(차지)만 나누고자 하기(하기)에 평생 아무것도 나누지

제주 지역 최초로 초등학교를 위한 생명나눔·존중교육 실시

“섬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눔을 심다”

“유아·누나, 누나의 장가(장가) 이야기를 읽고 놀음이 있어, 세상을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구한 누나는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을 거야.”

2014년 미국 유실역 당시 장가(장가)중으로 수많은 한지의 생명을 살린 제주 소년 김유나 양(양)이 지난 38세의 나이로 2022년 9월, 우도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낯선(낯선) 한 장가(장가)에 같은 도민이었던 김유나 양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기증(寄贈)을 할 한 편지를 써내려갔다. (해)사(海)상(上)의 장가(장가)기증(寄贈)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9월 28일, 제주도 우도면에 소재

한 우도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밝혔다.

제주 지역 최초로 실시되는 초등학교를 위한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도는 성산반도에서 북동쪽으로 38km 떨어진 둘레 17km의 섬마을이다. 이곳의 유일한 초등 교육기관인 우도초등학교는 전교생 4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을 실시하는 지난 2019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을 실시해 이제까지 3만 8천여

명의 아이들이 장가(장가)의 소중한 가치와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일깨웠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은 서클·장가(장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가 닿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특별한 이해(理解)에는 공동체(공동체) 대(大)소(小)문화(文化)재단, 제주특별자치도(道)개발공사의 후원과 제주특별자치도(道)교육청의 협조로 교육 책자 및 영상·교구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 제주 지역 최초로 25

명 4,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9월 28일, 우도초등학교에 본부 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하



여 섬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심었다.

장가(장가)중으로 아나, 봉사(奉仕)활동 및 기부 등 다양한 나눔활동 배우는 기회

아나 교육에는 우도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12명 5학년 학생 8명이 참여했다. 3교시 수업 시간에는 장가(장가)의 과정을 신장의 여원으로 표현한 그림책

을 함께 읽으며 아나 활동 장구의 위치 및 역할, 그리고 생명나눔의 의미 등을 학습했다.

이런 4교시 수업에서는 자(自)의 심장 박동 느껴보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좋은 습관 약속하기 등의 활동을 하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배웠다. 나아가 장가(장가)의 실제 사례를 만화화하고, 편지를 작성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이해했다.

시온순복음교회 교회이전 감사예배

월령산에서 야유회 갖고 하나님께 감사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도시현 목사)는 지난 9월 24일(토) 경북 상주시 봉암2길 40-7에 위치한 시온순복음교회(성서요수아 목사 사무)에서 교회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봉구 목사(주산영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허만운 목사(순복음상산교회)의 대표 기도, 증경지방회장 경태진 목사(인동성교회)의 마 10:19-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자들의 마음거짐과 기도의 병행에 대해서 전했다.



이어 회계 정인철 목사(상주천석교회)의 헌금 기도 후 성서요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가 교회이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교회)의 축사 및 축도로 시온순

복음교회 이전감사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원들이 모여 회와 및 교제를 나누고, 상주에서 있었던 지방회 경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축하해주고 인사 후 각자의 사직처로 향했다.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9월 27일(일) 금산순복음교회(담임 김병목 목사)에서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1부 예배에서 증경회장 정운기 목사는 마 2:1-7 말씀을 본문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두 마음을 품고 행하지 말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며 '마침내 바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영혼으로 돌아서서 다시 만나서, 첫 사랑을 회



복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다. 이어 회원들은 월령산 총림다리를 방문

해산책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경관을 감상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겸 강원도 1박 2일 야유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라' 말씀 선포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형순 목사)는 가을을 맞아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 못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토) 강원도지역을 탐방하는 여행지로 산악·전정·부회원 및 배우자까지 전제 무료로 월례회 겸 야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이후 갖는 야유회에 가장 많은 참석자인 44명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야유회에 앞서 드린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바울 목사의 기도, 사기 이은희 목사의 성경봉독 후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의 출 15:22-27을 본문으로 한 '미리의 은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로 마쳤다. 이후 월령산에서는 회의안건으로 10월 연합성회에 대한 협조 및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야유회의 첫 관광지인 대관령 양떼목장에 도착했지만 갑작스

러운 비로 아쉽게 물어진 후 다음 행선지인 속초로 이동하여 적산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긴 후 인근레스토랑을 찾았다.

동행한 높은 파도의 장관을 모든 회원들이 목격하며 탄성이 쏟아졌다. 첫날 하루 여정을 편안한 숙소에서 마친 후 영랑호수길을 산책한 후 춘천으로 향해 삼양산 케이블 카를 타고 올랐다.

모든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통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은 후 각자의 목장으로 돌아갔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형열 목사)는 지난 10월 11일(토) 열린순복음교회(김기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강신봉 목사(주심영교회)의 예배 전 찬양인도에서 이어 지방회 총무 서경오 목사(순복음부용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기도, 김효신 목사(전왕교회)의 성경봉독, 김효신 목사의 특송 루에 회계 김진원 목사(새전복

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엡 4:1-3 말씀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혼탁한 사회에 중요한 것은 가족 교인들이 서로 하나되어 단결하고 나갈 때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로 동체 서로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또한 격려해주며 주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므로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행하며 가리

기는 생령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총회를 앞둔 교회를 위해, 지방회와 교회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회를 갖고 서성영 목사(복원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목사의 광고 루에 지방회장 박형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박형열 목사의 인도로 11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지방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열린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다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장으로 향했다.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 각 5,000원
 - ② 이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③ 이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5,000원
 - ④ 성인용 : 8,000원
- * 중고등부용은 2023년 2월에 발간 예정(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특징

이동부 공과 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야와)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e-mail : gntc2922@gmail.com
- ②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③ 신청마감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함

문의

전 화: 02)2675-5181~3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형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공사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 (복음칼 목사 수상장)
- 2007. 10. 3 이천교회회의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문현길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형열 목사)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다음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교단, 교육 책임자에게 듣다’

미래목회포럼 제18-5차 정기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사장 박종대 목사는 지난 10월 9일(목) 기독교연합교회 2층 중앙당에서 제18-5차 정기포럼을 ‘다음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각 교단, 교육 책임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굵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는 사회에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한국교회에 미래를 만들고 꽃피어 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포럼은 포럼장 박종대 목사(세종교회)는 이날 포럼을 통해 ‘다음세대는 종교다원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주의주의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전에 언론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각인된 안락한 세대’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각 교단 교육 책임자들의 의견을 모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 말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 설동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포럼은 노재경 목사(예장 합동 교육전도국장, 원정인 목사(기독교국 사제대교육부장), 이기봉 목사(예장 고신 교육국장), 서경원 목사(예장 교육국장)가 발제했고, 김언아 선교사(미래세대교회 대표)와 정재명 목사(영복교회)가 패널로 순서를 이어갔다.



예장합동 교육전도국장 노재경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예장합동의 교육 정책 방향’에서 “작년의 사기를 해쳐 나가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을 제하지 않으면 교회 비전을 수립하기 어렵고 교육적 비전도 주의를 끌기 어렵다”며 “과거서 교회의 평안이 머물러 있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부흥에서 세상의 부흥평화를 제시하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예장합동이 ‘철학·부흥’을 주제로 전도운동으로 통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육적 측면의 ‘평화’, ‘하나님의 실패운동’을 설정했다. 실패 계획으로는 문화적 접근(죽기전, 토론, 베품 등 다음세대에게 걸맞은 문화적 장 마련), 공적 교회의 접근(예는 도서관 운동 등) 사설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삼는 비전 제시 등을 언급했다.

김언아 선교사는 “다음세대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에서 통합적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로 동의한다”며 “이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 받고 적용할 환경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교육국 차세대교육부장 원영인 목사는 “다음세대 이해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청년들의 요청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영상과 이벤트가 있는 세트로 청소년 교제, 실용영어영상을 만들어 교회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교회에 열려있는 사교를 갖게 되고 청년들이 한곳으로 돌아오는 반응을 보았다”고 공감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고신 교육국장 이기봉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생명의 양식 제자 교육과정 김명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발과정을 거쳐 출판된 주일학교 교과서 시리즈인 ‘침침 스토리’를 소개하고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침침 스토리는 단순한 주일학교 교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개발되었으며 자녀들이 주일에 말씀을 배우기 전 부모, 조부모와 교사가 먼저 수업일 저녁예배를 활용해 교과과정부터 말씀을 배우고 주중 구역,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다음세대 주일 제자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소개했다.

예장 교육국장 서경원 목사는 “메타버스와 교회 교육”에서 “다음의 실험과 환경 현재라는 시간이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 디지털화된 지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회 교육에 대한 점목으로, 지난 여름 한국교단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와 연계해 여름 사역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예장 교육국이 만든 플랫폼은 개 교회에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되고 있다고 전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오로지 힘을 일’-한인 디아스포라 복음화 및 세계복음화

세기총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80여 개국 200여 명 참석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하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4일(목)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 코노스빌룸에서 ‘오로지 힘을 일’이란 주제로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10주년 기념대회는 세기총 1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대외로 이날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10월 5일(금)부터 8일(토)까지 무주 태권도전장 태권도관에서 ‘1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선교사들과 함께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국내 성지 방문했다.

10월 9일(주일)은 안도성경교회(총회장 목사)에서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1일(토)부터 10월 19일(수)까지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기념대회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대회준비위원장 황희준 목사(한성교회)가 진행사를 맡았으며 대회회장 신하석 목사가 대회를 열었다.

황희준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10년 전 세계 180여 나라에 산재한 한인 개척교회(개신교회)를 하나로 연대하여 이 세대에 사회에 연합과 일치로 공동대처가 절대 필요했다”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기적적 유익을 지니고 이제 역동적으로 나아갈 창년 20년기로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대회를 주관한 신하석 목사는 “지구촌 전역에 흩어진 한국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신앙증진과 이들을 통한 한국인 디아스포라 복음화와 더불어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출범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교회와 교회사에 위키고 세상이 복음화 되는 일에 힘을 붙이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공동준비위원장 정형영 목사(세기총 수석임의회장)가 대표기도를, 대회공동준비위원장 김등근 장로(서울기독교총연합회)와 법인회장(가) 성경복을, 감정 교수(세기총 홍보대사)가 특별찬양을 했다.

이날 세계교회 40여개국을 행하여 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한 소경자 목사(한국교회총연합회 직전대표회장, 새아래교회)는 “교단교회화, 사도적 교회화”를 말하는 “교회 40”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 좁은 바에 있는 제국주의에 화석화된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 세움을 위해서”는 주님의 강력한 인제와 운영하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 뒤 박희순 목사(미주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재, 대표회장)의 주일예배 목사(세기총 제2대 대표회장, 법인이사장)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김대현 총무실장이 박보근 장로(문화체육관광부의)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날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석 목사가 축사를 한 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영성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세기총은 10주년을 맞아 대문화가족 장애인, 탈북인 홀어머니, 노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초청해 성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사단 전담교사, 자립준비청년 위생선교단, 미국 루터교회 목사(세기총 2대 대표회장)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살롱나비-개천절을 보내며

인류사회 평화와 복지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다

살롱나비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정경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침략을 많이 받아 왔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외세가를 주는 고향 속에서 교육의 역사와 문화를 지극심을 가지고 지켜왔다. 제정은 무더운 여름이 제정된 기고 안-모 가을이 슬픔 다 기웠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5대 국장임을 지고 있다. 31월,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특히 한글이 열리고 기쁘게 되었다는 개천절은 국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살롱나비는 2022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개천절의 중요성(인간) 정신을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화 기여의 보편적인 가치로 해석했다.

우리가 인간하고 있는 개천절 휴일인간 이념은 단군문화에서 유래하고 있다. 물론 대중교에서 말하는 정신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내리고 있다. 다만 고대인의 행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관습을 존중하기가 대중교의 신앙적으로 관습을 발전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조조전과 조전의 건국이 10월 3일이라는 점에

서 일제에 항복이 되고 대한민국 건국을 하면서 국경일로 지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다만 개천절의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해석학적 과제로 남아 있다. 영일 전투에서 자존심이 사비 많았지만 하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렇듯 한반도 역사의 근간을 이어온 단군신화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오해인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에 기원하며 시작이 된다. 대한민국 건국도 하나님께 주권 속하여 설리 가운데 존속하고 있으며 이어갈 것이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사상이므로 일원론적의 영역에서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화 기여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 정신과 합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자유로 존속하고 있으며 이어갈 것이 있다.

2.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평등, 인간존엄, 인류평화 화 기여를 중시하면서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은 예부터 정직하고 착한 면이 있다. 자유와 평화를 중요시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한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근본적으로 하는 사자로 발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주권의 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개천절을 맞이하여 남북의 관계에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 남북평화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주권의 강대국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개천절을 기념하고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류에 기여하는 자유와 평화의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인간존엄이란 가치의 실현은 실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존엄이 실현되어 외국인 노동자들과 탈북자들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이 존중되는 것은 귀한 사물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경도 개국의 생명 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다. 자살적인 선택은 결국 주위의 남은 자들이 평생을 두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실험이 있기를 바란다.

3. 말로만이 아닌 실현 가능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실천해야 한다.

사람은 크고 작은 정신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험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행정, 입법, 사법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인 구에서 개국의 발전, 기성과 사회를 받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비전 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한민국 시대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에 취임해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화 기여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소명으로 깨어나야 한다.

4. 북한이 말하는 우린국경이 아니 자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

요하게 생각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안락한 것은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것을 바꾸어 세우지 않고 사물을 부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안락한 젊은이들에게 나라는 조종하고 바른 근현대사를 편파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갖게 된다. 대통령과 국무회의, 입법기관에서 건국절(09.08.08) 15일을 세례하며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한민국 건국절을 법정일로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탄생을 제대로 기념하는 법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6.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자유민주에 빠진 국민 의에서 단호히 탈피해야 한다.

경제 10대 건국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나라는 74년 전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일관성 없고 행방불명하기 때문에 자에서 일관성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권장과 삶의 자리에서 자유민주를 들고 왔으며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의 사회로 전락하는 수직을 날게 되었다. 이제부터 법치세는 잘못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시대정신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못하다’는 기독교정신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건국으로 이어진다

7면에서 이어짐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을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해야 하겠다. 젊은이들이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누가 나서야 할 것이다.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역경을 개척해 나가는 건 강한 삶의 모습들을 살도록 삼행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면 자유 방종이 아닌 옳은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7. 총리인간! 장은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하여 탄생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구현되었다.

개천절의 정신인 홍익인간은 인류의 자유, 평화, 평등의 보편가치에 आधार지는 인간은 우리민족의 역사에서 조선시대 대한제국이 이르는 원조시대는 수련되지 못했다.

원조 시대는 왕이 모든 백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백성은 왕의 노예에 불과하였다. 세종 같은 성군 때에는 백성이 왕의 신하로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지만, 아미가 아니라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다. 백성은 왕의 종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이다. 대한제국도 왕이 주인이 아니었다. 1948년 이 승만과 한국 관료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이는 자유, 평화,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가 체제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광복일과 건국일이 혼동되기도 하였고, 건국일을 부정하는 일부 무리들이 있다.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나가야 한다.

8. 개천절의 정신인 홍익인간을 인류의 자유, 평화, 평등, 인간 존엄, 인류평화 기여라는 선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선택(미국, 영국 등 서방자유국가에 의해) 해방되었다.

해방 후 한반도는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여 북한은 공산주의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되었고, 북한 공산군은 1950년 기습남침하여 3년간 6.25 동란을 야기하였다. 6.25 전쟁후 남한(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다.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의 나라가 미국, 영국 등 해양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경제를 일으켰다. 여기에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의 리더십이 있었고 한민족의 인본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2019년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고, 2021년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국가가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개도국의 모범이 되어 우리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되돌려주는 자유, 평화, 평등, 인간 기본권 존중의 가치, 세계평화 기여하기를 실현하는 선진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29일
신문을 읽어야 할 때

대통령실 전선영 비서관 한교연 내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임원과 현안 논의

대통령 비서관 전선영(회교감비서관실) 전선영 비서관은 지난 10월 7일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임원들과 환담했다.

전 비서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온 했다"며 "국난이론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때 한국교회 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난 정부가 불공정하고 '내로남불'로 국난을 고초스럽게 하고 코로나19정체정체로 예배를 봉행하는 등 한국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을 보고 정권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모든 '불정'이 정식으로 회복될 기를 드노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자 교계 안팎에서 엄

청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와 신념을 꺾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지금 비록 윤 대통령이 대한 지지를 아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술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 국민도 이 마음 중심을 보고 신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한국교회연합이 정부가 하는 일에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특히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복지사업에 앞장서셨으로써 종교의 대화적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소복을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불속에서 살려주신 은혜

능력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은선 목사입니다. 저는 30대에 부름을 받아 전국 방방곡곡 다녔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금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30대에 제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병든 영혼을 보내서 17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어 양육하며 돌봐주었습니다. 그후 교회를 다시 섬기게 하고서 사자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일로써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4일 전가후전으로 교회가 불이 나면 서 불속에서도 다 나날의 세진구처럼 불꽃이 웃고 마리에 달아져도 타지 않고 살아 주셨습니다.

사망이 다가오지 않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고 살아나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교회를 이끄러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세전도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였습니다. 각자 부여받은 사명이 다면 박영수 목사님과 이수교수의 세전도집회를 함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

다. 거기에 나가 또 신망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접기도를 시키며 전도를 할 때 먼저 여러가지로 자책하는 제 영혼이 힘을 얻었습니다. 영혼들이 그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시켜왔던 부교역자들도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 영접기도를 시키고 들어오는 모습에 보람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지만 이런 열매를 통해 교회에 생명의 불이 전도의 불이 불이 불속에서 살려주신 것이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능력선교교회 담임 임은선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회장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소복을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6392-1691, 0103730-2573

‘그날, 12월 31일’, 종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김준수 장편소설 ‘그날, 12월 31일’

김준수 장편소설 ‘그날, 12월 31일’. 일반문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들던 김준수 목사가 첫 장편소설을 펴냈다. 그동안 다양한 작품활동으로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문단과 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가 20년 가까이 구상해온 책인 소설 ‘그날, 12월 31일’을 출간했다.

이 소설에는 신론기지를 그렸지만 문학을 하겠다며 젊이 문단에 뛰어든 무명의 젊은 작가 '나' (김현수, 34)의 연애편지 고고학 박사인 윤준희(33). 현재의 삶과는 종교적 열광과 세상 풍월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힌 유평파를 열광하는 수학박사 이별(30) 등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들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걱정하며 동굴에 갇혀 있다. 그때부터 두 번째 말레-점과 세 번째 말레-점까지 걸치는 1999년 12월 31일 야구가 재발함으로써 지구와 인류 문명은 끝이 나고 지상에 천문학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확실한 다양한 사건을 겪고 고문부 두 한다. 결국 작가는 세 사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묘모험사건들과 대화들을 통해 사랑과 우정, 약속과 신뢰, 삶과 죽음, 이성과 현실, 신앙과 이성, 희생과 헌신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풀어가며 질문과 답을 던진다.

김준수 장편소설 ‘그날, 12월 31일’ 이 소설의 중요 키워드는 시간이다. 이를 세 시대가 맞닿아 있는 1999년 12월 31일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 시간이 왔다. 각기 목적이 다른 세 사람은 2년 이상 이사에서 두루마리를 보관해 온 물만 동굴 안에서 가까스로 다툼의 열쇠를 찾아내지만, 지만, 뜻밖의 사태를 맞는다. 대체 그날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주인공 '나'는 2년 반만 걸었던 바다를 그들의 사자를 뚫었다.

김 목사는 작품에서 인류의 영원한 주제에도 같은 '종말'에 대해 심도 깊은 메시지를 던진다. 무엇이



보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 그는 '지구 종말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는 관심사가 되어왔다. 성경의 기르침과 구약에서부터 종말은 그 날을 단어로 빈번히 등장한다'며 '종말론은 역사, 인식, 세계관, 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이교도의 관계, 시간과 존재 등 사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긴장한 종말론을 확립하는 것은 밝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말, 혹은 죽음 자체를 끝까지 생각하는 사고를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소설에서 "한대들의 마음은 현재의 세계에 결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크리스천은 현재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만 미래의 영원한 삶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종말의 시기와 범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은 묵묵히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목사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과장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땅에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겨 신앙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을 경계한다. 작품 속 주인공 이 내일은 '우리네 삶이 아이들에게도 죽음으로 소비된다면 대체 우리는 죽기 위해 어떤 것들을 살아왔

다는 것인가?'라는 말은 각 목사가 세상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다.

자자 김준수 목사는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비주류 작가다. 역사, 철학, 신학, 문명에 대한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과 신과 세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21세기형 지식인이다.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별명이 언어의 연금술사.

그의 유려한 글솜씨는 1998년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책 실을 다시 바꾼 1%의 재능도 세상에 알려줬다. 이 책은 비소설 부문에서 수개월 동안 1위를 달렸고, 그해 문학 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뽐냈다.

작가로서 김준수 목사는 독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주인공 현수를 통해 '저는 주님께 언제 오실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을 박차게 하는 장미로운 약속인가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김준수 목사의 첫 번째 소설이 독자들의 큰 관심 속에 사내 대형서점 신간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라 전열되고 있다. '그날, 12월 31일'. 이 책은 현재 기독교인, 비 기독교인 모두에게 큰 관심을 모으며, 시장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이다. 자자 김준수 목사는 역사, 철학, 신학, 문명에 대한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과 신과 세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주는 작가다.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중앙대학교 신문화학과를 졸업하고,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목회학 석사(M. Div.)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M. Min) 과정을 이수한 뒤 평내소복을교회(장남동) 담임목사와 'Charis Bible Academy' 대표를 맡고 있다.

문의 : 0216093-0899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의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글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할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 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군비금도천일염판매 20kg 40,000원(택배비포함)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신교회·기관 다량구매 010-3000-7602 연락바랍니다

상당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대)



